

# November 2025 Prayer Requests



On Thursday, October 23, JinJu and I visited Pastor Jeremy Ferguson at the Pampanga Provincial Jail. It has been about two and a half months since Pastor Jeremy's nightmare began on August 13, leading to his incarceration. I learned where he was being held through David McCready (BananaMan). When I called the facility, they said visiting hours were 1:00–3:30 p.m., Tuesday through Saturday, and confirmed we could bring food.

We brought a pepperoni pizza and chicken wings. We weren't sure what to expect. I pictured a jail with individual cells, but the facility surprised us. Security was strict (e.g., no more than one shirt; no orange or pink shirts; long pants for women; face masks required; no belts, phones, smartwatches, or wallets; and a cash limit of ₱3,000—about US\$50). The pizza was thoroughly inspected; the soda cans, forks, and napkins were not allowed. We were stamped on the backs of our hands and had a large VISITOR stamp across our right forearms.

We were then led to Pastor Jeremy's cell block. As we entered, we saw him playing chess with his wife, Kristine. He didn't recognize us at first because of our masks, but when we removed them, his face lit up with surprise. We shook hands and hugged. The cell block is roughly 15 feet wide by 30 feet long and houses about 70 people. There aren't enough beds, so many sleep on the floor. A few fans near the window offer the only relief from the heat and humidity.

For the next two hours, we spoke at length about his case. When he was first arrested and placed in Angeles City Jail, a former presidential candidate, Atty. Joey Montemayor, visited and offered to represent him pro bono. Pastor Jeremy asked how he had even heard about the case. Atty. Montemayor said he saw the injustice and sensed God telling him to help. Praise God!

Of the eight charges originally brought against Pastor Jeremy, seven have been dismissed; only one remains. This week the attorney submitted the final paperwork to the Bureau of Immigration, and he hopes Pastor Jeremy will be released on bail by the end of the week, pending a trial in January 2026. There is much more we could share, but for now we ask for intercessory prayer that Pastor Jeremy will be able to walk out of the facility a free man.



The next morning (Friday) we visited the Cutud Happy Church Village for our monthly family visits. We were accompanied by Pastor Jerry, who oversees the work Pastor Ricky has been doing there. When we arrived, children from the church were practicing for a Taekwondo competition scheduled for that afternoon. Their routines were choreographed around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at evening, after we returned home, we learned the children won 2nd place!



We brought care packages for each of the five families we visited, and each home overflowed with testimony and blessing. We prayed for Brother Bong, who has suffered ongoing illness related to a surgery years ago. He also shared that he struggles with an addiction. It was a powerful time of prayer, and we could see the Holy Spirit moving in Bong's heart.



Next we visited Sister Dominga, who had the flu and was bedridden and weak. JinJu gave her Tylenol to reduce the fever. She mentioned it had been her birthday the day before and she was unable to celebrate. Providentially, JinJu had brought a gift we'd purchased in Korea. Dominga was so surprised we remembered; she sat up, still weak but smiling, and for a moment seemed to forget her illness.



Our third visit was with Caesar and his nephew, Joshua. Caesar told us Joshua wanted to show us his drawings. Joshua is autistic and, though 23 years old, has the demeanor of a shy ten-year-old. It was wonderful to see his artwork and the stack of sketchbooks filled with his pieces.



After the visits, we had lunch with Pastors Jerry and Ricky and discussed the children's feeding program along the Abacan River in the squatter communities. Pastor Jerry shared that he has been ministering to children at one of the sites and is eager to help however he can.

Lastly, on our way back to Manila, we stopped by the Korean Elim Center to check on the multipurpose center addition. Work remains on hold while we await the city building permit.



### **Prayer Requests**

1. **Release for Pastor Jeremy** — that he would be freed from jail as the false accusations against him and the orphanage are dismissed.
2. **Vindication for the orphanage** — that all charges be dropped and the children safely returned.
3. **Healing for Cutud Happy Church Village** — recovery and health for church members.
4. **Provision & Gospel Outreach** — continued food for children in the squatter areas and faithful evangelism of the next generation.
5. **Permit Approval** — swift approval for the new building at the Korean Elim Center.

## 11월 기도제목

**10월 23일(목)**, 진주와 저는 팜팡가 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제러미 퍼거슨 목사님을 면회했습니다. 목사님의 악몽 같은 *ordeal*이 **8월 13일**에 시작되어 수감되기까지 약 두 달 반이 흘렀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맥크리디(바나나맨)\*\***를 통해 목사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게 되었고, 시설에 전화해 보니 화~토, 오후 **1:00~3:30**이 면회 시간이며 음식을 가져가는 것도 허용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우리는 페퍼로니 피자와 치킨 윙을 준비해 갔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각 수감자에게 독방이 있는 전형적인 교도소를 떠올렸지만, 실제 시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보안 규정이 매우 엄격했습니다(예: 겹쳐 입는 상의 불가, 오렌지/핑크색 상의 불가, 여성은 긴 바지, 마스크 필수, 벨트·휴대전화·스마트워치·지갑 반입 금지, 현금은 최대 **3,000페소**(약 미화 **50달러**) 등). 우리가 가져간 피자는 내용물 검사를 철저히 받았고 탄산음료 캔, 포크, 냅킨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손등에는 도장을, 오른쪽 팔에는 **\*\*VISITOR(방문객)\*\***라는 큰 스템프를 찍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목사님의 사동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목사님은 아내 크리스틴과 체스를 두고 계셨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처음엔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벗자 놀란 미소로 환하게 반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하고 서로 포옹했습니다. 그 사동은 대략 가로 **15피트**, 세로 **30피트(약 4.5×9m)** 크기에 약 **70명**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침대가 부족해 많은 이들이 밤에는 바닥에서 잡니다. 창가의 몇 대의 선풍기가 더위와 습기로부터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다음 두 시간 동안 우리는 사건 전반을 깊이 나눴습니다. 처음 앙헬레스 시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대선 후보 출신 변호사 조이 몬테마요르가 찾아와 **\*\*프로보노(무보수)\*\***로 변호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묻자, 몬테마요르 변호사는 불의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감동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처음 제기된 **8개** 혐의 중 **7개**는 기각되었고 **1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변호사가 출입국관리국에 최종 서류를 제출했고, 목사님이 보석으로 이번 주 말까지 석방되어 **2026년 1월**로 예정된 재판을 기다릴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자유의 몸으로 그 문을 걸어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다음 날인 금요일, 우리는 쿠투드 해피교회 마을로 월례 가정 심방을 갔습니다. 그곳 사역을 감독하는 제리 목사가 리키 목사와 함께하는 사역을 살피며 동행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교회 아이들이 그날 오후 열릴 태권도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제로 안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소식을 들으니, 아이들이 \*\*준우승(2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섯 가정 각각에 구호 패키지를 전달했습니다. 방문한 모든 가정에서 간증과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오래전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계속 아파온 봉 형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독의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봉 형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뚜렷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도밍가 자매를 방문했습니다. 독감으로 누워 지낼 정도로 쇠약해 있었습니다. 진주는 타이레놀을 건네며 열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자매는 전날이 생일이었지만 기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침 진주가 한국에서 준비해 온 선물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며, 아직 약하지만 미소를 띠고 몸을 일으켜 잠시나마 아픔을 잊는 듯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저와 조카 조슈아를 만났습니다. 시저는 조슈아가 자신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조슈아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23세**이지만 수줍은 **10살** 정도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작품들과 스케치북 더미를 보며 정말 감탄했습니다.

심방을 마치고 우리는 제리·리키 목사와 함께 식사하며 아바칸 강가 스쿼터 지역에서 진행하는 아동 급식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제리 목사는 그중 한 곳에서 아이들을 계속 전도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돋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닐라로 돌아오는 길에 코리안 엘림 센터에 들러 다목적센터 증축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시청 건축 허가를 기다리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

## 기도제목

1. 제러미 목사님의 석방 – 목사님과 고아원에 대한 허위 혐의가 철회되어, 목사님이 속히 구치소에서 풀려나도록.
2. 고아원의 명예 회복 – 모든 기소가 취소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3. 쿠투드 해피교회 마을 성도들의 치유 – 성도들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
4. 공급과 복음 전파 – 스쿼터 지역 아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급식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충만히 전파되도록.
5. 허가 승인 – 코리안 엘림 센터 신축 건물의 허가가 신속히 승인되도록.